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Theory and Practice
2008. 6. 제9권 2호, pp. 311~337.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에 대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비교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김 현 정
아름특수어린이집 교사
이 승 희*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되어 있는 일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중·고등부의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자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유급특수교육보조원 총60명과 해당학교의 관련특수교사(즉,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되어 있는 학급의 담임교사) 총78명 전체였다. 설문지는 기초사항 7문항과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 관련 26문항(자격 및 역할 9문항, 교육 및 배치 8문항, 활용 및 관리 9문항)의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138부(특수교사용 78부, 특수교육보조원용 60부)가 배부되었으며 그 가운데 116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4.1%). 회수된 설문지는 기술통계(빈도, 백분율, 순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자격 및 역할, 교육 및 배치, 활용 및 관리의 순서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별로 비교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가 논의되었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이 제시되었다.

주제어 : 특수교육보조원제, 특수교사, 특수교육보조원, 유급특수교육보조원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특수교육은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아동들에게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시설, 설비 및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고 일반교육 안에서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통합교육의 당위성에 대한 법적인 측면,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 교신저자(youletta@chosun.ac.kr)

www.kci.go.kr

는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아동의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교육성과적인 측면에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에게 그들의 발달을 최대화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이소현・박은혜, 2006).

이와 같은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그동안 특수학급 설치가 증대되고 중도・중복장애아동들도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에 배치되면서 이들을 위한 강도 높은 지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보조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특수교육 정책연구의 하나인 「특수교육발전 5개년(2003-2007)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박승희 외, 2001)에서 장애아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여건의 하나로 보조교사제 도입이 제안되었으며, 2002년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방안 연구」(강경숙 외, 2002)를 통해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과 역할, 선발, 양성과 배치, 활용 및 관리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2003-2007)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유급의 특수교육보조원제를 시범・운영하였고 이를 토대로 2004년 국가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1,000명을 선정・지원하였으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1,000명씩 증원하여 전국적으로 4,000명을 지원・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07년 7월 현재 전국 초・중・고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및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의 수는 3,915명에 이르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그러나 이러한 특수교육보조원제의 확대에 따라 운영 및 효과에 대한 연구들(예: 강경숙・김용욱, 2004; 김광수, 2006; 서정애, 2005; 신은향, 2003; 이경옥, 2005; 이인순, 2005; 이충무, 2005; 장명수, 2006; 정영숙, 2003)이 수행되면서 그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은향(2003)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과 역할, 교육 및 배치, 활용 및 관리 등에서 교사들간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정애(2005)도 유・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수교육보조원의 전문성과 자질,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 특수교육보조원의 관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살펴보면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간의 인식차이가 드러나 있는데 이러한 인식차이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간의 협력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통합교육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인식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문제점 해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교급별상 초등학교에 국한되어 있거나 학급유형상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조사대상이 교사 아니면 특수교육보조원에 국한되어 수행된 경우가 많아 초・중・고등학교에 걸쳐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의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된 비교조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되어 있는 일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중・고등부의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

www.kci.go.kr

에 대한 인식을 비교・조사하여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가지고 수행되었다(연구자주: 특수교육보조원의 유형에는 유급특수교육보조원, 장애통합보조원, 공익근무요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특수교육보조원은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학교장의 임용을 받아 특수교사의 교육적 활동과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을 말한다).

①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및 역할에 대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② 특수교육보조원의 교육 및 배치에 대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③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및 관리에 대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에 대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을 비교해 보기 위해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되어 있는 일반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초・중・고등부의 특수교사와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실시된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비교를 위해 2007년 5월 현재 G광역시 소재 일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유급특수교육보조원 총60명과 해당 학교의 관련특수교사(즉,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되어 있는 학급의 담임교사) 총78명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이 중 특수교사로부터 65부(회수율 83.3%)가 회수되었으며 유급특수교육보조원으로부터는 51부(회수율 85.0%)가 회수되었다. 설문지 응답자에 대한 기초사항을 특수교사와 유급특수교육보조원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www.kci.go.kr

<표 1> 연구대상자의 기초사항 (N = 116)

특수교사 (*n* = 65)					특수교육보조원 (*n* = 51)				
구분	내용	빈도	%	계(%)	구분	내용	빈도	%	계(%)
성별	남	9	13.8	65(100.0)	성별	남	1	2.0	51(100.0)
	여	56	86.2			여	50	98.0	
연령	20~24세	2	3.1	65(100.0)	연령	20~24세	3	5.9	51(100.0)
	25~29세	17	26.2			25~29세	9	17.6	
	30~34세	15	23.1			30~34세	7	13.8	
	35~39세	17	26.2			35~39세	16	31.4	
	40~44세	5	7.7			40~44세	10	19.6	
	45~49세	2	3.0			45~49세	5	9.8	
	50~54세	1	1.5			50~54세	1	1.9	
	55~59세	5	7.7			55~59세	0	0.0	
	60세 이상	1	1.5			60세 이상	0	0.0	
소지 자격	·	·	·	65(100.0)	소지 자격	없음	8	13.6	51(100.0)
	일반교사	2	3.0			치료교사	2	3.4	
	특수교사	51	78.5			보육교사	14	23.7	
	특수교사+일반교사	12	18.5			사회복지사	22	37.3	
	·	·	·			기타	13	22.0	
특수 교육 경력	1년 미만	8	12.3	65(100.0)	근무 경력	·	·	·	51(100.0)
	1년이상~ 2년미만	3	4.6			·	·	·	
	2년이상~ 3년미만	6	9.2			6개월미만	10	19.6	
	3년이상~ 4년미만	7	10.8			6개월이상~1년미만	15	29.4	
	4년이상~ 5년미만	4	6.2			1년이상~2년미만	17	33.4	
	5년이상~ 6년미만	5	7.7			2년이상~3년미만	7	13.7	
	6년이상~ 7년미만	2	3.1			3년이상~4년미만	2	3.9	
	7년이상~ 8년미만	3	4.6			4년이상~5년미만	0	0.0	
	8년이상~ 9년미만	6	9.2			·	·	·	
	9년이상~10년미만	6	9.2			·	·	·	
	10년이상	15	23.1			·	·	·	
학교 급별	초등학교(초등부)	43	66.1	65(100.0)	학교 급별	초등학교(초등부)	31	60.8	51(100.0)
	중학교(중등부)	12	18.5			중학교(중등부)	10	19.6	
	고등학교(고등부)	10	15.4			고등학교(고등부)	10	19.6	
보조원과 근무한 기간	6개월미만	17	26.1	65(100.0)	장애 경험 유·무	·	·	·	51(100.0)
	6개월이상~1년미만	4	6.2			·	·	·	
	1년이상~2년미만	20	30.8			유	26	51.0	
	2년이상~3년미만	19	29.2			무	25	49.0	
	3년이상~4년미만	3	4.6			·	·	·	
	4년이상~5년미만	2	3.1			·	·	·	
아동의 장애 정도	경도	26	40.0	65(100.0)	아동의 장애 정도	경도	16	31.4	51(100.0)
	중등도	32	49.2			중등도	27	52.9	
	중도	7	10.8			중도	8	15.7	

www.kci.go.kr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김광수(2006), 장명수(2006), 그리고 이인순(2005)이 사용한 설문지를 근거로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문항의 수정・보완절차는 G광역시 특수교사 5명에게 설문지를 직접 전달한 후 작성하게 하여 1차 수정・보완을 하였으며 다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특수교사 5명에게 전자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어 2차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설문지는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기초사항(성별, 연령, 소지자격, 학교급별 등),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및 역할, 특수교육보조원의 교육 및 배치,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및 관리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구체적인 문항의 구성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문항의 구성내용

구분		질문 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기초사항		특수교사: 성별, 연령, 소지자격, 특수교육경력, 학교급별, 보조원과 근무한 기간, 학생의 장애정도 특수교육보조원: 성별, 연령, 소지자격, 근무경력, 학교급별, 장애경험 유・무, 학생의 장애정도	1- 7	7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	자격 및 역할	보조원의 학력, 적절한 사람, 보조원 명칭, 보조원 자질, 장애아동 지원역할, 역할한계의 갈등, 근무 시 어려운 점 상담, 역할수행 지시	1- 9	9
	교육 및 배치	보조원 양성교육방법, 고용형태, 임용형태, 연수내용, 직무연수기간, 배치・운영의 장점	10-17	8
	활용 및 관리	보조원의 근무시간, 업무관리, 인사관리, 보조원제 효과, 학생안전관리 책임여부, 평가, 배치장소, 근무자세, 지원영역별 지원계획수립 횟수	18-26	9
계				33

4. 연구절차

먼저 설문지의 문제점과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G광역시 특수교사 5명에게 1차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이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문항을 수정・보완한 다음 또 다른 5명의 특수교사에게 2차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유급특수교육보조원 60명과 해당 학교의 관련특수교사 78명 전체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배부된 138부의 설문지 중 116부(84.1%)가 회수되었고 설문지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로 나타났다.

www.kci.go.kr

5. 자료분석

연구대상자들의 응답은 기술통계(빈도와 백분율)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중복응답한 문항의 경우에는 케이스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우선순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순위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 및 역할

1) 특수교육보조원의 학력

특수교육보조원의 적절한 학력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이 각각 43.1%와 54.9%로 전문대학 졸업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2순위로 특수교사는 고등학교졸업에 응답한 반면 특수교육보조원은 대학졸업에 응답하여 특수교사보다 적절한 학력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특수교육보조원의 적절한 학력(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빈도	%	빈도	%
고등학교 졸업	20	30.8	9	17.6
전문대학 졸업	28	43.1	28	54.9
대학 졸업	14	21.5	11	21.6
기타	3	4.6	3	5.9
계	65	100.0	51	100.0

2)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에 적절한 사람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묻는 문항의 응답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 2 순위로 특수교사는 사회복지관련 전공(경험)자와 아동교육관련 전공(경험)자에 각각 41.5%와 36.9%로 응답한 반면 특수교육보조원은 아동교육관련 전공(경험)자와 사회복지관련 전공(경험)자에 각각 45.1%와 29.5%로 응답함

www.kci.go.kr

으로써 특수교사는 사회복지전공을 특수교육보조원은 아동교육전공을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는 차이를 보였다.

<표 4>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에 가장 적절한 사람(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빈도	%	빈도	%
아동교육관련 전공(경험)자	24	36.9	23	45.1
장애아동 부모	0	0.0	2	3.9
사회복지관련 전공(경험)자	27	41.5	15	29.5
관계없이 임용절차에 합격된 사람	4	6.2	4	7.8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등 치료관련전문가	5	7.7	5	9.8
기타	5	7.7	2	9.8
계	65	100.0	51	100.0

3)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의 적절성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명칭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의 응답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수교사는 95.4%가 '예'라고 응답한 반면 특수교육보조원은 51.0%가 '예'라고 응답하여 두 집단간에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의 적절성(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빈도	%	빈도	%
예	62	95.4	26	51.0
아니오	3	4.6	25	49.0
계	65	100.0	51	100.0

4)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이 적절한 이유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명칭이 적절한 이유를 묻는 문항의 응답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사의 46.2%와 특수교육보조원의 37.3%가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존 교육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학보조원, 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www.kci.go.kr

<표 6> 특수교육보조원 명칭이 적절한 이유(N=88*)

항목	특수교사(*n*=62)		특수교육보조원(*n*=26)	
	빈도	%	빈도	%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의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30	46.2	19	37.3
특수교육보조원이 정규직으로 신분전환을 요구하는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0	0.0	0	0.0
기존 교육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과학보조원, 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27	41.5	7	13.7
기타	5	7.7	0	0.0
계	62	100.0	26	100.0

*특수교육보조원의 명칭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수.

5)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

특수교육현장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우선순위별로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장애 원인, 개념 및 분류에 대한 이해	5	7.7	8	12.3	8	12.3	7	13.7	9	17.6	11	21.6
건강 및 의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0	0.0	4	6.2	1	1.5	0	0.0	1	2.0	1	2.0
인간발달(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신체, 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9	13.9	14	21.5	14	21.5	7	13.7	8	15.7	11	21.6
문제행동지도를 포함한 생활지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	10	15.4	18	27.7	12	18.6	12	23.5	15	29.4	9	17.6
기본적인 학습(읽기, 쓰기, 셈하기) 지도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	0	0.0	4	6.2	6	9.3	0	0.0	3	5.8	5	9.8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	0	0.0	1	1.5	5	7.7	0	0.0	1	2.0	1	2.0
컴퓨터 활용능력	0	0.0	1	1.5	2	3.0	0	0.0	0	0.0	1	2.0
교육관련 법령 및 행정적 사무처리에 대한 이해	1	1.5	0	0.0	1	1.5	0	0.0	0	0.0	0	0.0
장애보상 치료활동(언어, 작업, 물리, 심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	3	4.6	1	1.5	3	4.6	1	2.0	4	7.8	3	5.8
지식이나 기술보다 풍부한 이해심과 봉사정신	33	50.7	14	21.6	10	15.4	24	47.1	10	19.6	9	17.6
기타	4	6.2	0	0.0	3	4.6	0	0.0	0	0.0	0	0.0
계	65	100.0	65	100.0	65	100.0	51	100.0	51	100.0	51	100.0

www.kci.go.kr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집단 모두 1순위에서 3순위까지가 유사하였다. 즉, 1순위로는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풍부한 이해심과 봉사정신'에 특수교사의 50.7%와 특수교사의 47.1%가 응답하였으며 2순위로는 '문제행동지도를 포함한 생활지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에 특수교사의 27.7%와 특수교육보조원의 29.4%가 응답하였고 3순위로 특수교사는 '인간발달(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신체, 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 21.5%가 응답한 데 비해 특수교육보조원은 '인간발달(인지, 언어, 정서, 사회성, 신체, 운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장애 원인, 개념 및 분류에 대한 이해'에 똑같이 21.6%가 응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6)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의 중요 역할

특수교육보조원 역할 중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우선순위별로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보조원의 중요 역할(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수업보조하기	17	26.2	12	18.5	15	23.1	15	23.1	5	7.7	8	12.3
교수활동 중에 학생의 행동을 기록하고 교사와 의사소통하기	5	7.7	4	6.2	9	13.8	5	7.7	7	10.8	10	19.6
교수-학습활동 지원자료 준비 및 작성	3	4.6	8	12.3	8	12.3	0	0.0	1	1.5	5	7.7
적응기술(신변처리, 착탈의, 식사지도 등) 관리	29	44.6	18	27.7	9	13.8	20	31.0	14	22.0	6	11.7
문제행동 관리	6	9.2	15	23.1	8	12.3	5	7.7	15	23.1	8	12.3
장애학생 가족과의 상호작용	0	0.0	2	3.0	0	0.0	0	0.0	1	1.5	1	1.5
비장애 학생과의 관계형성 지원	2	3.0	2	3.0	6	9.2	4	6.2	7	10.8	5	7.7
교사의 행정업무 지원	0	0.0	0	0.0	6	9.2	0	0.0	0	0.0	2	3.0
보조장비 사용(예: 휠체어 및 보장구 사용) 지원	1	1.5	4	6.2	4	6.2	2	3.0	1	1.5	5	7.7
기타	2	3.0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65	100.0	65	100.0	65	100.0	51	100.0	51	100.0	51	100.0

<표 8>에 보이는 바와 같이 특수교사는 1순위로 44.6%가 그리고 2순위로 27.7%가 모두 '적응기술(신변처리, 착탈의, 식사지도 등) 관리'라고 응답하였으며 3순위로 23.1%가 '수업보조하기'로 응답한 데 비해 특수교육보조원은 1순위로 31.0%가 '적응기술(신변처리, 착탈의, 식사지도 등) 관리'에 응답하였고 2순위로 23.1%가 '문제행동 관리'에 응답하였으며 3순위로는 19.6%가 '교수활동 중에 학생의 행동을 기록하고 교사와 의사소통하기'에 응답함으로써 특수교사는 장애아동을 위한 적응기술관리와 수업보조하기를 중

www.kci.go.kr

요하게 인식하는 반면 특수교육보조원은 문제행동관리와 교사와의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특수교육보조원 역할과 관련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갈등

특수교육보조원 역할 중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교사와 보조원 간에 갈등을 경험한 역할을 묻는 문항에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수교사는 '갈등경험 없음'에 29.1%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활동 지원'과 '이동지원 및 안전생활 지원'에 각각 16.3%가 응답한 데 비해 특수교육보조원은 '갈등경험 없음'에 38.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에 '이동지원 및 안전생활 지원'과 '문제행동관리 지원'에 각각 14.7%와 13.2%가 응답하였다. 즉, 응답자의 1/3정도가 갈등경험이 없다고 하였으며 갈등경험이 있는 경우 '이동지원 및 안전생활 지원'에서 두 집단 모두 높은 응답을 하는 유사점이 나타났으나 특수교사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높은 응답을 한 반면 특수교육보조원은 '문제행동관리 지원'에 높은 응답을 하는 차이점도 나타났다.

<표 9> 특수교육보조원 역할과 관련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갈등(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빈도	%	빈도	%
갈등경험 없음	27	21.9	26	38.2
교수-학습활동(예: 수업보조, 학습자료 제작) 지원	20	16.3	7	10.3
교사의 사무업무 지원	6	4.9	5	7.4
이동지원 및 안전생활 지원(교실이동, 현장학습 지원, 통학보조, 안전보호 등)	20	16.3	10	14.7
장애학생 가족과의 상담	17	14.6	4	5.9
문제행동관리 지원	18	13.8	9	13.2
적응기술(신변처리, 착탈의, 식사지도 등)	11	8.9	5	7.3
보조장비 사용(예: 휠체어 및 보장구 사용) 지원	0	0.0	1	1.5
기타	4	3.3	1	1.5
계	123*	100.0	68*	100.0

*중복응답한 수.

8) 특수교육보조원 역할과 관련된 상담 대상

특수교육보조원과 함께(또는 특수교육보조원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때 주로 누구와 상담을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보이는 바와 같이 특수교사는 '타 학급 특수교사'에 69.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기타'에 21.6%가 응답한 데 비해 특수교육보조원은 '기타'에 47.1%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타 학급 특수교육보조원'에 35.3%가 응답함으로

www.kci.go.kr

써 특수교사는 다른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은 다른 특수교육보조원과 주로 상담을 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다.

<표 10> 특수교육보조원 역할과 관련된 상담 대상(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빈도	%	빈도	%
학교장이나 교감	5	7.7	1	1.9
타 학급 특수교사	45	69.2	8	15.7
타 학급 특수교육보조원	0	0.0	18	35.3
학부모	1	1.5	0	0.0
기타	14	21.6	24	47.1
계	65	100.0	51	100.0

9)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역할수행 지시방법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역할수행 지시방법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수교사는 '특수교사가 직접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매일 지시함'에 40.0%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특수교사가 만든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행하게 함'에 23.0%가 응답한 데 비해 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교사가 만든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행하게 함'에 39.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특수교사가 직접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매일 지시함'에 31.4%가 응답함으로써 1순위와 2순위가 바뀌는 차이를 보였다.

<표 11>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역할수행 지시방법(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빈도	%	빈도	%
특수교사가 직접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매일 지시함	26	40.0	16	31.4
보조원이 자신의 일일 업무를 자율적으로 정하게 함	12	18.5	10	19.6
특수교사가 만든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행하게 함	15	23.0	20	39.2
기타	12	18.5	5	9.8
계	65	100.0	51	100.0

www.kci.go.kr

2. 특수교육보조원의 교육 및 배치

1) 특수교육보조원의 양성 교육방법

특수교육보조원의 가장 적절한 양성 교육방법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 보이는 바와 같이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를 이수하게 함'에 각각 41.5%와 58.8%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 단기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에 각각 40.0%와 35.3%가 응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특수교육보조원 양성 교육방법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수교사에 비해 특수교육보조원이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를 이수하게 함'에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는 차이도 나타났다.

<표 12> 특수교육보조원 양성 교육방법(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빈도	%	빈도	%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6개월 단기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	26	40.0	18	35.3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를 이수하게 함	27	41.5	30	58.8
인력개발센터 주관의 특수교육보조원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이수하게 함	7	10.8	2	3.9
특수교육보조원이 속해 있는 학급의 교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교육받게 함	0	0.0	1	2.0
기타	5	7.7	0	0.0
계	65	100.0	51	100.0

2) 특수교육보조원의 고용형태

특수교육보조원의 적절한 고용형태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수교사는 '계약직'에 69.3%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정규직'에 29.2%가 응답한 반면 특수교육보조원은 '정규직'에 64.7%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그 다음으로 '계약직'에 35.3%가 응답함으로써 두 집단간에 명확한 인식차이를 보였다.

www.kci.go.kr

<표 13> 특수교육보조원의 고용형태(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빈도	%	빈도	%
계약직	45	69.3	18	35.3
일용직	1	1.5	0	0.0
정규직	19	29.2	33	64.7
계	65	100.0	51	100.0

3) 특수교육보조원의 계약직 임기

특수교육보조원을 계약직으로 임용할 경우의 적절한 형태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학년별(1년)'에 각각 85.9%와 98.1%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나 특수교육보조원이 다소 더 높게 응답함으로써 특수교사보다 특수교육보조원이 장기간의 임용을 더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4> 특수교육보조원의 계약직 임기(N=115)

항목	특수교사(*n*=64*)		특수교육보조원(*n*=51)	
	빈도	%	빈도	%
학년별(1년)	55	85.9	50	98.1
학기별(6개월)	9	14.1	1	1.9
분기별(3개월)	10	0.0	0	0.0
계	64	100.0	51	100.0

*1명이 무응답한 수.

4) 특수교육보조원의 연수 내용

특수교육보조원의 연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 5가지를 우선순위별로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문제행동의 예방 및 중재 전략'과 '적응기술(신변처리, 착탈의, 식사지도) 관리' 및 '착석 및 수업태도 지도방법'을 중요한 연수내용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수교사의 경우 1순위로 '적응기술(신변처리, 착탈의, 식사지도) 관리'에 가장 많은 응답(32.3%)을 한 반면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1순위로 '장애유형별 특징 이해'에 가장 많은 응답(39.2%)을 하는 차이를 보였다.

www.kci.go.kr

<표 15> 특수교육보조원의 연수 내용(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1순		2순		3순		4순		5순		1순		2순		3순		4순		5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장애유형별 특징 이해	16	24.7	7	10.8	4	6.2	10	15.4	7	10.8	20	39.2	4	7.8	8	15.7	3	5.9	3	5.9
장애유형별 교수-학습 지원방법	2	3.1	6	9.2	6	9.2	3	4.6	10	15.4	5	9.8	10	19.6	5	9.8	7	13.7	5	9.8
치료교육의 이론과 실제	0	0.0	0	0.0	0	0.0	1	1.5	1	1.5	1	2.0	1	2.0	1	2.0	0	0.0	4	7.8
특수학교(급) 교육과정과 개별화 교육의 이해	2	3.1	4	6.2	1	1.5	1	1.5	2	3.1	0	0.0	2	3.9	4	7.8	1	2.0	1	2.0
통합교육의 개념 및 실천원칙의 이해	11	16.9	4	6.2	9	13.8	8	12.3	1	1.5	5	9.8	2	3.9	4	7.8	5	9.8	2	3.9
장애인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5	7.7	9	13.8	8	12.3	7	10.8	2	3.1	6	11.7	6	11.7	2	3.9	2	3.9	7	13.7
문제행동의 예방 및 중재 전략	4	6.2	10	15.3	18	27.7	5	7.7	7	10.8	5	9.8	15	29.4	10	19.6	10	19.6	7	13.7
건강보호 및 안전생활 지원방법 (예: 인슐린투입, 심폐소생술, 현장학습)	1	1.5	9	13.8	4	6.2	5	7.7	5	7.7	5	9.8	0	0.0	1	2.0	2	3.9	3	5.9
적응기술(신변처리, 착탈의, 식사지도) 관리	21	32.3	8	12.8	8	12.3	15	23.1	8	12.3	3	5.9	6	11.7	5	9.8	10	19.6	5	9.8
착석 및 수업태도 지도방법	1	1.5	4	6.2	3	4.6	4	6.2	12	18.4	0	0.0	3	5.9	9	17.6	5	9.8	10	19.6
의사소통기술	0	0.0	2	3.1	4	6.2	5	7.7	5	7.7	0	0.0	1	2.0	1	2.0	6	11.7	2	3.9
발달심리학	1	1.5	2	3.1	0	0.0	1	1.5	2	3.1	1	2.0	0	0.0	1	2.0	0	0.0	0	0.0
컴퓨터 활용실무	0	0.0	0	0.0	0	0.0	0	0.0	3	4.6	0	0.0	0	0.0	1	2.0	0	0.0	2	3.9
기타	1	1.5	0	0.0	0	0.0	0	0.0	0	0.0	0	0.0	1	2.0	0	0.0	0	0.0	0	0.0
계	65	100.0	65	100.0	65	100.0	65	100.0	65	100.0	51	100.0	51	100.0	51	100.0	51	100.0	51	100.0

5)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 기초과정의 적정 시간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 기초과정의 적절한 시간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에 보이는 바와 같이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74.5%가 60시간에 응답을 한 반면 특수교사의 경우는 60시간과 120시간에 각각 41.5%와 38.5%가 응답함으로써 특수교육보조원에 비해 특수교사가 더 많은 연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 기초과정의 적정 시간(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빈도	%	빈도	%
30시간	2	3.1	1	2.0
60시간	27	41.5	38	74.5
120시간	25	38.5	8	15.7
180시간	6	9.2	2	3.9
360시간	5	7.7	2	3.9
계	65	100.0	51	100.0

www.kci.go.kr

6)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 심화과정(30시간)의 적정성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되는 30시간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 심화과정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70.6%가 '적당하다'에 응답을 한 반면 특수교사의 경우는 '적당하다'와 '확대 실시해야 한다'에 각각 40.0%와 55.4%가 응답함으로써 특수교육보조원에 비해 특수교사가 심화과정의 확대실시가 필요하다고 더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 심화과정(30시간)의 적정성(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빈도	%	빈도	%
확대 실시해야 한다	36	55.4	13	25.5
적당하다	26	40.0	36	70.6
축소 실시해야 한다	3	4.6	2	3.9
계	65	100.0	51	100.0

7)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과정의 도움 정도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과정이 실제 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에 보이는 바와 같이 특수교사 75.1%와 특수교육보조원 68.6%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에 응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과정 도움 정도(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빈도	%	빈도	%
매우 도움이 된다	7	10.8	9	17.7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49	75.4	35	68.6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9	13.8	7	13.7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	0.0	0	0.0
계	65	100.0	51	100.0

8)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운영의 장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운영의 장점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수교사는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교외활동을 돕는다'에 43.1%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자리이탈이나 과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전을 돕는다'에 32.3%가 응답한 데 비해 특수교육보조원은 '자리이탈이나 과잉행동

www.kci.go.kr

시 장애아동의 안전을 돕는다'에 49.0%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교외활동을 돕는다'에 29.4%가 응답함으로써 1순위와 2순위가 바뀌는 차이를 보였다.

<표 19>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운영의 장점(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빈도	%	빈도	%
자리이탈이나 과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전을 돕는다	21	32.3	25	49.0
장애아동의 수업내용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어 학교생활의 참여정도를 높인다	11	16.9	10	19.0
특수교사나 통합교사의 학습자료 제작 등의 업무를 보조한다	4	6.2	1	2.0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교외활동(현장학습, 사회적응훈련)을 돕는다	28	43.1	15	29.4
기타	1	1.5	0	0.0
계	65	100.0	51	100.0

3.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및 관리

1)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시간

특수교육보조원의 적절한 근무시간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에 보이는 바와 같이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교원과 동일하게 일반 근무시간대에 근무'에 각각 55.4%와 76.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의 일과(수업) 시간에만 근무'에 각각 16.9%와 17.6%가 응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비슷한 인식을 보였으나 특수교사에 비해 특수교육보조원이 '교원과 동일하게 일반 근무시간대에 근무'하는 것을 다소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시간(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빈도	%	빈도	%
학생의 일과(수업) 시간에만 근무	11	16.9	9	17.6
등・하교 지도 및 방과후 활동까지 근무	10	15.4	3	5.9
교사가 요청하는 시간에만(시간제) 근무	6	9.2	0	0.0
교원과 동일하게 일반 근무시간대에 근무	36	55.4	39	76.5
기타	2	3.1	0	0.0
계	65	100.0	51	100.0

www.kci.go.kr

2) 특수교육보조원의 업무관리 방법

특수교육보조원의 업무관리 방법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교사가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직접 지시하여 보조원이 기록함'에 각각 72.3%와 68.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장(감) 또는 시설장이 업무일지를 관리하고 주간이나 월간 일지로 작성함'에 각각 16.9%와 17.5%가 응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유사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표 21> 특수교육보조원의 업무관리 방법(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빈도	%	빈도	%
교사가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직접 지시하여 보조원이 기록함	47	72.3	35	68.6
교사가 보조원의 활동을 관찰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함	3	4.6	5	9.8
교장(감) 또는 시설장이 업무일지를 관리하고 주간이나 월간 일지로 작성함	11	16.9	9	17.5
기타	4	6.2	2	3.9
계	65	100.0	51	100.0

3)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사관리 방법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사관리 방법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에 보이는 바와 같이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교육청에서 각 학교(학급)에 인원수를 정해 주고 각 학교에서 선발, 배치, 및 관리'에 각각 32.3%와 39.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특수교사는 '교육청에서 선발 및 배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관리'에 29.2%가 응답하고 특수교육보조원은 '교육청에서 선발, 배치, 및 관리'에 29.4%가 응답함으로써 특수교사에 비해 특수교육보조원이 교육청에 의한 인사관리를 다소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사관리 방법(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빈도	%	빈도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발, 배치, 및 관리	16	24.6	11	21.6
교육청에서 선발, 배치, 및 관리	9	13.9	15	29.4
교육청에서 각 학교(학급)에 인원수를 정해 주고 각 학교에서 선발, 배치, 및 관리	21	32.3	20	39.2
교육청에서 선발 및 배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관리	19	29.2	5	9.8
기타	0	0.0	0	0.0
계	65	100.0	51	100.0

www.kci.go.kr

4)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에 효과적인 영역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에 가장 효과적인 영역 3가지를 우선순위별로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에 보이는 바와 같이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전반적으로 '현장학습 도움'과 '신변처리 도움'에 많은 응답을 하였으나 1순위로 특수교사는 '신변처리 도움'에 29.3%가 응답하였고 특수교육보조원은 '개별화 보조수업'에 21.6%가 응답함으로써 선호하는 영역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표 23>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에 효과적인 영역(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우관계 형성	1	1.5	0	0.0	2	3.1	5	9.8	1	2.0	4	7.8
생활지도(학교규칙 준수)	5	7.7	2	3.1	2	3.1	7	13.7	2	3.9	6	11.7
학교 내 이동	12	18.5	7	10.8	10	15.4	6	11.7	5	9.8	5	9.8
학습자료 제작	1	1.5	1	1.5	2	3.1	0	0.0	1	2.0	0	0.0
현장학습 도움	12	18.5	18	27.7	12	18.5	3	5.9	12	23.5	10	19.6
개별화 수업보조	8	12.3	7	10.8	7	10.8	11	21.6	2	3.9	4	7.8
문제행동 관리	5	7.7	6	9.2	4	6.2	10	19.6	9	17.6	7	13.7
신변처리 도움	19	29.3	9	13.8	16	24.7	8	15.7	11	21.6	10	19.6
식사지도	1	1.5	15	23.1	8	12.3	1	2.0	8	15.7	5	9.8
통학지도	0	0.0	0	0.0	2	3.1	0	0.0	0	0.0	0	0.0
기타	1	1.5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65	100.0	65	100.0	65	100.0	51	100.0	51	100.0	51	100.0

5) 특수교육보조원의 책임한계

학교에서 안전관리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수교육보조원의 책임한계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24>와 같다.

<표 24> 특수교육보조원의 책임한계(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빈도	%	빈도	%
학생을 맡는 동안은 특수교육보조원이 책임	12	18.5	5	9.8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이 절반씩 책임	16	24.6	11	21.6
전적으로 특수교사가 책임	8	12.3	12	23.5
모든 안전의 문제는 학교의 관리자가 책임	23	35.4	20	39.2
기타	6	9.2	3	5.9
계	65	100.0	51	100.0

www.kci.go.kr

<표 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모든 안전의 문제는 학교의 관리자가 책임'에 각각 35.4%와 39.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특수교사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이 절반씩 책임'에 24.6%가 응답한 데 비해 특수교육보조원은 '전적으로 특수교사가 책임'에 23.5%가 응답함으로써 책임한계에 있어서의 인식차이를 다소 보였다.

6) 특수교육보조원의 평가자

특수교육보조원의 가장 바람직한 평가자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25>와 같다. <표 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특수교사'에 각각 69.3%와 68.6%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특수교사는 '학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에 16.9%가 응답한 데 비해 특수교육보조원은 '학교장'에 19.6%가 응답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평가자에 있어서의 인식차이를 다소 보였다.

<표 25> 특수교육보조원의 바람직한 평가자(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빈도	%	빈도	%
교육청	2	3.1	3	5.9
학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	11	16.9	1	2.0
학교장	1	1.5	10	19.6
특수교사	45	69.3	35	68.6
기타	6	9.2	2	3.9
계	65	100.0	51	100.0

7)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장소

특수교육보조원의 가장 적절한 배치장소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에 보이는 바와 같이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교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나 특수교사는 66.2%가 응답하였고 특수교육보조원은 80.4%가 응답함으로써 특수교사에 비해 특수교육보조원이 '교실'을 다소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특수교육보조원의 적절한 배치장소(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빈도	%	빈도	%
교무실	3	4.6	2	3.9
행정실	3	4.6	0	0.0
교실	43	66.2	41	80.4
기타	16	24.6	8	15.7
계	65	100.0	51	100.0

www.kci.go.kr

8)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자세

특수교육보조원의 가장 중요한 근무자세 3가지를 우선순위별로 중복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특수교사의 경우 1순위로 '교사의 의사를 잘 수용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에 2순위로 '장애학생에게 대신 해주기보다는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에 3순위로 '학교생활의 예절을 지키고 기본적인 근무태도 및 자세를 준수한다'에 각각 37.3%, 23.1%, 20.0%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데 비해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는 1순위와 2순위로 '장애학생 개개인의 욕구나 필요, 가치 등을 인정하고 개인차를 존중한다'에 각각 31.5%와 27.5%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3순위로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항상 최선의 것을 판단하고 의심이 나면 교사에게 묻는다'에 27.5%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함으로써 특수교사와 다소 인식차이를 보였다.

<표 27> 특수교육보조원의 중요한 근무자세(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1순		2순		3순		1순		2순		3순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사의 의사를 잘 수용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19	37.3	6	9.2	11	16.9	10	19.6	5	9.8	6	11.8
장애학생 개개인의 욕구나 필요, 가치 등을 인정하고 개인차를 존중한다	15	23.1	8	12.3	10	15.4	16	31.5	14	27.5	10	19.6
학교생활의 예절을 지키고 기본적인 근무태도 및 자세를 준수한다	12	18.5	11	16.9	13	20.0	9	17.6	5	9.8	7	13.7
수업상황이나 학교의 업무와 관련하여 교사의 수업방식이나 발생된 여러 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3	4.6	11	16.9	5	7.7	1	2.0	6	11.8	4	7.8
장애학생에게 대신 해주기보다는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5	7.7	15	23.1	9	13.9	9	17.6	12	23.5	6	11.8
부정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긍정적인 언어적 표현과 몸짓 표정을 짓는다	3	4.6	3	4.6	3	4.6	0	0.0	4	7.8	1	2.0
교사, 학부모, 학교 관련자 등의 주변 사람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혹시 기분이 나쁘더라도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3	4.6	2	3.1	3	3.6	0	0.0	1	2.0	2	3.9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항상 최선의 것을 판단하고 의심이 나면 교사에게 질문을 한다	5	7.7	9	13.9	10	15.4	6	11.7	4	7.8	14	27.5
기타	0	0.0	0	0.0	1	1.5	0	0.0	0	0.0	1	2.0
계	65	100.0	65	100.0	65	100.0	51	100.0	51	100.0	51	100.0

www.kci.go.kr

9) 특수교육보조원과의 지원영역별 활동계획

특수교육보조원과 지원영역별 활동계획을 1주일에 몇 회 정도 수립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28>과 같다. <표 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하지 않는다'에 각각 33.8%와 29.4%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한다'의 응답에서는 특수교사의 경우 1회(30.8%), 3회 이상(27.7%), 2회(7.7%)의 순으로 응답한 데 비해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1회(25.5%), 2회(23.5%), 3회 이상(21.6%)의 순으로 응답하여 회수에서 다소 인식차이를 보였다.

<표 28> 특수교육보조원과의 지원영역별 활동계획(N=116)

항목		특수교사(*n*=65)		특수교육보조원(*n*=51)	
		빈도	%	빈도	%
하지 않는다		22	33.8	15	29.4
()회 정도 한다	1회	20	30.8	13	25.5
	2회	5	7.7	12	23.5
	3회 이상	18	27.7	11	21.6
계		65	100.0	51	100.0

Ⅳ. 논의 및 제언

1. 논의

1)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과 역할

특수교육보조원의 적절한 학력과 관련하여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전문대학졸업'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강경숙 등(2002)의 연구에서 74.2%가 특수교육보조원의 학력으로 전문대학졸업 이상을 요구한 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보조원보다 적절한 학력을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특수교사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에도 많은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특수교육보조원에게 기대되는 주된 역할이 직접 학생을 교육하기보다는 특수교사를 보조하는 업무이므로 교사와 동등한 학력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주장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부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에 적절한 사람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아동교육관련 전공자와 사회복지관련 전공자에 많은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관련 선행연구들(강경숙, 2002; 김광수, 2006; 박종천, 2006)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특수교사는 사회복지전공을 그리고 특수교육보조원은 아동교육전공을 더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는 차이도 나타났는

www.kci.go.kr

데 이러한 차이는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에 대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명칭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특수교사 95.4% 그리고 특수교육보조원 51.0%는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49.0%의 특수교육보조원에게 적절한 명칭을 물어 본 결과 '특수교육 보조선생님', '특수교육도우미', '통합교육선생님' 등으로 답하였다. 이 점과 관련하여 강경숙 등(2002)은 특수교육보조원이란 교육의 주도자가 아니라 특수교사의 교육적 활동에 대한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특수교육보조원'이라는 명칭은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자질과 관련하여서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지식이나 기술보다는 풍부한 이해심과 봉사정신'을 가장 우선적인 자질로 인식하였고 그 다음으로 '문제행동지도를 포함한 생활지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및 기술'을 중요한 자질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강경숙(2002), 김광수(2006), 변성희(2006) 등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 중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적응기술(신변처리, 착탈의, 식사지도 등) 관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관련 선행연구들(김광수, 2006; 윤경희, 2003; 이충무, 200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수교육보조원 역할 중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아 교사와 보조원 간에 발생한 갈등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1/3 정도가 갈등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즉, 2/3 정도는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수교사에 의하면 이러한 갈등은 주로 '교수-학습 활동 지원'과 '이동지원 및 안전생활 지원'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간의 명확한 역할정립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김주영 등(2001)이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을 어디까지나 특수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듯이 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교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교수-학습 활동이나 이동과 안전생활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보조원과 함께(또는 특수교육보조원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때 특수교사는 '타 학급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은 '타 학급 특수교육보조원'과 주로 상담을 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났는데 이는 두 집단 간의 의견차이를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의사소통 통로의 필요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역할수행 지시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두 집단 간에 큰 인식차이는 없었는데, 주로 특수교사가 직접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매일 지시하거나 특수교사가 만든 업무수행 분석표에 의해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2) 특수교육보조원의 교육 및 배치

특수교육보조원 양성 교육방법과 관련하여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연수를 이수하게 함'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시·교육청이 책임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보조원의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간에 명확한 인식차이를 보였는데, 특수교사는 계약직에 많은 응답을 한 반면 특수교육보조원은 정규직에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계약직의 임기에 대해서도 특수교사에 비해 특수교육보조원이 장기간의 임용을 더 원하고 있었다. 이는 고용에 대한 특수교육보조원의 불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불안은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특수교육보조원의 고용형태 및 임기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중요한 연수내용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문제행동의 예방 및 중재 전략'과 '적응기술(신변처리, 착탈의, 식사지도) 관리' 및 '착석 및 수업태도 지도방법'을 중요한 연수내용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수교사의 경우 1순위로 '적응기술(신변처리, 착탈의, 식사지도) 관리'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반면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1순위로 '장애유형별 특징 이해'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의 범위에 대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차이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직무연수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에서 모두 특수교사가 특수교육보조원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변성희(2006), 윤경희(2003), 이충무(2005) 등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특수교육보조원 직무연수과정이 실제 활동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있어서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운영의 장점과 관련하여 특수교사는 '장애정도가 심한 아동의 교외활동을 돕는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데 비해 특수교육보조원은 '자리이탈이나 과잉행동 시 장애아동의 안전을 돕는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특수교사의 경우 중도·중복장애 학생들과 관련된 지원을 더 필요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특수교육보조원의 활용 및 관리

특수교육보조원의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교원과 동일한 일반 근무시간대에 근무'에 많은 응답을 하였으나 특수교사(55.4%)에 비해 특수교육보조원(76.5%)이 더 많은 응답을 하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차이도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의 범위에 대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간의 인식차이의 반영이라고 할 수

www.kci.go.kr

있을 것이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업무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교사가 보조원의 일일 업무를 직접 지시하여 보조원이 기록함'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전반적으로 유사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사관리 방법에 있어서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교육청에서 각 학교(학급)에 인원수를 정해 주고 각 학교에서 선발, 배치, 및 관리'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김광수(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기는 하였으나 응답비율은 두 집단 모두 30%대에 머물렀다. 나머지 응답 항목에서 특수교사에 비해 특수교육보조원이 교육청에 의한 인사관리를 다소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수교육보조원의 경우 학교로 인사관리 업무가 위임될수록 고용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더 느끼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에 가장 효과적인 영역과 관련해서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전반적으로 '현장학습 도움'과 '신변처리 도움'에 많은 응답을 하였으나 1순위로 특수교사는 '신변처리 도움'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특수교육보조원은 '개별화 보조수업'에 가장 많이 응답함으로써 선호하는 영역에서 다소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차이 또한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의 범위에 대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간의 인식차이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책임한계와 관련하여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모든 안전의 문제는 학교의 관리자가 책임'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특수교사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이 절반씩 책임'에 많이 응답한 데 비해 특수교육보조원은 '전적으로 특수교사가 책임'에 많이 응답함으로써 책임한계에 있어서의 인식차이를 보였다. 즉, 학교에서의 안전관리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수교육보조원은 학교관리자 또는 특수교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인식이 높았는데 이는 특수교육보조원의 고용보장 또는 신분보장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수교육보조원의 평가자와 관련해서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특수교사'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여 선행 관련연구(강경숙 외, 2002; 김광수, 2006)와 일치하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으로 특수교사는 '학교 개별화교육운영위원회'에 많이 응답한 데 비해 특수교육보조원은 '학교장'에 많이 응답함으로써 가장 바람직한 평가자에 있어서 인식차이를 다소 보였다.

특수교육보조원의 배치장소와 관련해서도 두 집단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모두 '교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나 특수교사는 66.2%가 응답하였고 특수교육보조원은 80.4%가 응답함으로써 특수교육보조원에 비해 특수교사가 '교실'을 다소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이인순(2005)은 학생들이 하교한 이후 시간에도 특수교육보조원이 특수교사와 함께 상주하는 것이 특수교사에게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www.kci.go.kr

특수교육보조원의 가장 중요한 근무자세 3가지를 순위별로 응답하게 한 결과 각 순위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이 모두 달랐는데, 예를 들어 1순위의 경우 특수교사는 '교사의 의사를 잘 수용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조정하기 위해 노력한다'에 가장 많이 응답한 데 비해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 개개인의 욕구나 필요, 가치 등을 인정하고 개인차를 존중한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도 특수교육보조원 역할의 범위에 대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간의 인식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특수교육보조원과의 지원영역별 활동계획의 빈도와 관련하여 두 집단 모두 1/3 정도가 '하지 않는다'에 응답하였으나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그 횟수에 있어서 다소 인식차이를 보였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지역에 소재하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전국규모의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특수교육보조원 유형 중 유급특수교육보조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장애통합보조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보조원 전반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된 다른 유형의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비교연구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에 대한 인식에서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 사이에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으므로 이러한 차이점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숙・강영택・김성애・정동영 (2002).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방안 연구. 경기도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강경숙・김용욱 (2004). 특수교육보조원의 실태 및 자질과 역할에 대한 인식수준. **특수교육연구, 11(2)**, 131-155.

교육인적자원부 (2004).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개선 방안.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2007). 특수교육실태조사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김광수 (2006). 특수교육보조원제도 운영에 있어서 특수학급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비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주영・이미선・이유훈・최세민 (2001). 중등 특수학급 운영 개선방안. 경기도 안산: 국립특수교

www.kci.go.kr

육원.
박승희・강영택・박은혜・신현기・이효신・정동영 (2001). 특수교육발전 5개년(2003-2007)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박종천 (2006). 중등학교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변성희 (2006).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에 대한 특수학급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 비교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정애 (2005). 유・초등학교 특수교육보조원 제도의 인식: 현 정부지원 특수교육보조원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은향 (2003). 통합학급 보조원제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윤경희 (2003). 특수교육보조원제도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이경옥 (2005). 특수교육보조원을 활용한 통합교육이 장애아동의 학습태도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소현・박은혜 (2006). **특수아동교육**(제2판). 서울: 학지사.
이인순 (2005). 초등학교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충무 (2005).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활용에 관한 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장명수 (2006). 특수교육보조원제 운영 실태와 성과에 대한 통합학급교사, 특수학급교사, 특수교육보조원의 인식비교 조사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정영숙 (2003).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통합학급의 교사와 아동의 인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www.kci.go.kr

A Comparison of Perception on Operating the Teacher-Aid System betwe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araprofessionals in the Area of Gwangju

Kim, Hyunjung
Arum Special Nursery School
Lee, Seunghee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perception on operating the teacher-aid system betwe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araprofessionals. To do this, a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60 paraprofessionals and 78 special educational teachers who were working at general elementary · middle · high schools or special schools in the area of Gwangju. One hundred sixteen questionnaires were returned and they were analyzed to answer three research questions as follows:

①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perception on qualification and roles of paraprofessionals betwe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araprofessionals?

②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perception on education and placement of paraprofessionals betwe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araprofessionals?

③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perception on use and management of paraprofessionals betwe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paraprofessionals?

The results are discussed in order of the three research questions and some consider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esented.

Key words : teatcher-aid system, special education teachers, paraprofessionals,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high schools, special schools

논문 접수: 2008. 5. 5 심사 시작: 2008. 5. 13 게재 확정: 2008. 6. 20

www.kci.go.kr